



## 20세기 초 동아시아 ‘향토’ 개념과 중국작가의 ‘향토’ 의식

A Study of the Early 20th Century East Asian Peoples' Concept of 'Locality' and the Chinese writers' Local Consciousness

---

**저자** 이윤희  
**(Authors)** Lee Yun Hee

**출처** [동아문화 52](#), 2014.11, 139–165 (27 pages)  
**(Source)** [The Journal of S.N.U. Institute for Asian Studies 52](#), 2014.11, 139–165 (27 pages)

**발행처**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Publisher)** Institute for Asian Studies Colleges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39743>

**APA Style** 이윤희 (2014). 20세기 초 동아시아 ‘향토’ 개념과 중국작가의 ‘향토’ 의식. 동아문화, 52, 139–165.

**이용정보** 서울대학교  
**(Accessed)** 147.46.182.23  
2015/12/30 10:41 (K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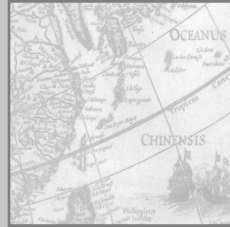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東 · 亞 · 文 · 化 · 52

## 20세기 초 동아시아 ‘향토’ 개념과 중국작가의 ‘향토’ 의식

이윤희

1. 시작하며
2. 애국의 출발: 일본의 ‘향토’
3. 식민 통치의 도구, 식민 조국의 은유: 한국 ‘향토’ 개념의 양가성
4. 지식계층의 태생적 뿌리: 중국의 ‘향토’
5. 중국현대작가와 향토문학
6. 마무리하며



# 20세기 초 동아시아 ‘향토’ 개념과 중국작가의 ‘향토’ 의식

이윤희\*

## 1. 시작하며

중국현·당대문학에서 향토문학<sup>1)</sup>은 1920년대 초·중반부터 2010년대로 접어든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창작, 비평되고 있는 문학텍스트이다. 중국문학에서 향토문학은 한 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창작되었을 뿐 아니라 늘 문단의 중심에서 작가와 독자,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 왔다. ‘백년간 중국의 주류 문학’<sup>2)</sup>이었던 향토문학은 각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불리웠지만,<sup>3)</sup> 작가와 독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언제

---

\* 가톨릭대학교 강사

- 1) 본고에서 언급하는 향토문학은 향촌(농촌)이라는 공간의 문화와 풍속, 인간을 다루면서 지역적인 특색과 전통적인(혹은 당대적인) 향토의 생활을 묘사한 문학작품을 이르기로 한다.
- 2) 이 표현은 孟繁華의 연구논문 제목에서 인용. 孟繁華, 「百年中國的主流文學」, 王光東主編, 『中國現當代鄉土文學研究·上』, 東方出版中心, 2011年, 218-227쪽.
- 3) 중국 향토문학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명칭과 내용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쳤다. 20년대 ‘향토문학’에서 30년대 이후 ‘농촌 제재 소설’로, 30~40년대 沈從文과 蕭紅, 路翎 등의 향토 소재 소설, 50년대 농업협작화 과정을 묘사한 『山鄉巨變』, 『艷陽天』, 『金光大道』 등의 중장편소설, 80년대 심근문학, 2000년대 이후 신향토소

나 그 시기 주요 작가의 중요한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중국문학에서 이러한 향토문학 열기가 과거의 역사일 뿐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힘이 주도하는 공업화와 상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촌(향촌)이라는 공간과 그곳의 문화가 해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유독 사라지고 해체되는 그 공간과 그곳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다룬 문학에 대한 애호와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농촌 해체에 따라 농민과 그 고유한 문화 역시 이산, 해체되며 빠르게 도시문화 속으로 예측되는 세계 추세 속에서, 여전히 향토문학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중국문단과 학계의 현상은 특이해 보인다.<sup>4)</sup>

설과 底層敍事의 일부 작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향토 소재 문학은 100년 가까이 계속 창작되어 왔다.

- 4) 중국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향토문학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은 최근 몇년간 출간된 향토문학 전문 연구서(단행본)만 10여 종에 이른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서적이 있다. ① 王光東主編, 『中國現當代鄉土文學研究 上下卷』, 東方出版中心, 2011年; ② 吳海清, 『鄉土世界的現代性想像: 中國現當代文學鄉土敍事思想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11年; ③ 韓春燕, 『文字裏的村莊: 當代中國小說的村莊敍事』, 上海人民出版社, 2011年; ④ 楊位儉, 『浴血傳奇: 戰時中國文學鄉土敍事研究』, 瀋江出版社, 2011年; ⑤ 張永, 『民俗學與中國現代鄉土小說』, 上海三聯, 2010年; ⑥ 姚曉雷, 『鄉土與聲音: 民間審視下的新時期以來河南鄉土類型小說』, 山東教育出版社, 2010年; ⑦ 吳妍妍, 『現代性視野中的陝西當代鄉土文學』, 人民出版社, 2010年; ⑧ 王建倉, 『中國現代鄉土文學的敍事詩學: 現代民族境界敍事和意象敍事兼論沈從文賈平凹』,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年; ⑨ 張懿紅, 『緬想與徜徉: 跨世紀鄉土小說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年; ⑩ 張麗軍, 『鄉土中國現代性的文學想像』, 上海三聯, 2009年; ⑪ 趙允芳, 『尋根·拔根·扎根: 90年代以來鄉土小說的流變』, 作家出版社, 2009年; ⑫ 黃曙光, 『當代小說中的鄉村敍事: 關於農民、革命與現代性之關係的文學表達』, 巴蜀書社, 2009年; ⑬ 張麗軍, 『想像農民: 鄉土中國現代化語境下對農民的思想認知與審美顯現(1895-1949)』, 山東人民出版社, 2009年; ⑭ 陳國和, 『1990年代以來鄉村小說的當代性』,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年. 이 외에도 중국문화의 정체성과 향토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서 또한 출판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서적들이 있다. 黃平主編, 『鄉土中國與文化自覺』, 三聯書店,

20세기 초 향토문학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헝가리 등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천착한 창작물이었다. 그것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진행으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들이 각박하고 비인간적인 도시 생활에 대한 대안으로 고향과 전원을 떠올리며 시작되었으며, 또한 농업 문명이 공업 문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두 문명 사이에 발생한 충돌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 문명을 관조할 새로운 시각을 획득한 작가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기도 했다. 딱딱히 굳어진 정태적인 농업 문명의 그림자였던 향토는 바야흐로 사상가와 예술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향토문학도 이로부터 특수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sup>5)</sup> 이러한 출발은 20세기 초 전 세계 향토문학의 보편적인 특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향토문학은 이 같은 보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국의 역사적 상황이 달리 전개됨에 따라 저마다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운명은 문학의 장 밖에서 작용하는 정치적·사회적 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향토문학은 기타 국가의 향토문학과 공유한 출발점 이외에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100년의 시간을 걸어왔다. 특히 중국 향토문학은 전술하였듯 현재에도 계속 재탄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문학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같은 흥성을 지켜보며, 중국문학에서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작가들로 하여금 한 세기 넘도록 향토에 천착하게 만드는지, 중국 작가 의식 속 '향토'는 어떠한 뿌리와 특색을 지니기에 이토록 질긴 문학의 인연으로 창조되는가에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7年; 薛毅,『鄉土中國與文化研究』,上海書店出版社,2008年.

5) 丁帆,『中國鄉土小說史』,北京大學出版社,2007年,1쪽.

본고는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시도로서 근대 이후 중국작가와 지식인들 의식 속 ‘향토’ 개념을 탐색하고, 이것이 20세기 초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향토’ 개념과 갈라지는 지점을 변별함으로써 중국만의 특수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전통시기부터 ‘鄉土’라는 한자어를 공유해 왔으나, 근대 이후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 달리 전개됨에 따라 저마다의 함의가 달라지게 되었다. 당시 서구중심적 근대의 상대적 후발주자로서의 조바심에 시달린 식민 일본과 전통과 근대의 착종 속에 있던 반식민 중국, 이와 더불어 자기동일시의 대상으로서 국가를 은유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게 된 피식민 한국의 역사적 상황은 향토 개념의 근대적 전환과 그 전개과정에서 경로 차이를 만들어내었다.<sup>6)</sup>

전통 시기 동아시아 지식인 의식 속 ‘향토’가 근대 이후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 처음 계기는 독일의 ‘Heimatkunst 운동’을 일본이 번역해 들어오며 ‘향토예술 운동’이라 명명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번역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의 ‘향토’가 다만 전통 시기의 ‘고향’이라는 간단한 의미를 넘어 확장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근대 독일의 ‘향토예술 운동’은 독일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에서 배태된 운동으로서, 18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와의 국력 경쟁에서 후발주자였던 독일이 이들을 앞지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산업혁명의 폐해와 대치되는 지점에 고국(독일)의 흙과 자연을 상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변 국가를 앞지르기 위하여 강대한 민족이 뭉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독일은 “민족의 공통된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일의 향토를 불변

6) 한지은, 「근대 중국에서 ‘鄉土’ 개념의 전개」, 『문화역사지리』 제22권 제1호, 2010년, 101쪽.

의 관념으로 위치<sup>7)</sup>시키고자 하였다.<sup>8)</sup> 독일어에서 고향을 의미하던 '하이마트(Heimat)'가 '향토학(Heimatkunde)'과 '향토예술(Heimatkunst)' 등 독일 민족주의를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변화된 상황, 그리고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일본이 이를 '郷土'라 바꾼 번역은 이후 이 번역어를 공유한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 '향토'가 전통 시기와는 다른 의미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아시아 3국의 역사가 상이하게 펼쳐짐에 따라 '郷土'의 내포는 달리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동아시아에서 '향토' 개념은 불변하는 실체가 아닌 유동적이고 다의적인 언어적 구성물로서 당시의 담론과 이데올로기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 새롭게 구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9)</sup>

본고에서는 20세기 초 한·중·일에서 전개된 서로 다른 '향토'의 내면을 살핌으로써 중국의 향토문학이 한국, 일본과 달리 작가들에 의해 부단히 재탄생되는 특이한 현상의 근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통 시기 동아시아 3국의 문헌에서 '郷土'는 공통적으로 고향 땅을 의미하였지만 20세기 초 저마다 다른 개념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은 무척 상이하였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20세기 중·후반을 거쳐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한·중·일에서 '향토'와 '향토문학'이 서로 달리 재현되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해주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향토'는 지식인(작가) 의식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원

7) 김도경, 「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향토 담론」,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제50집, 2010년 12월, 279쪽.

8) 독일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향토예술 운동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함. 천미수, 「민족주의 독어독문학의 발전—1890년에서 1945년까지 독어독문학의 학문사적 고찰」, 『독일어문학』 Vol.35, 2006년; 이규영, 「향토예술운동과 Timm Kröger의 작품 '귀향 Heimkehr'에 나타난 고향」, 『독일어문학』 Vol.27, 2004년.

9) 한지은, 「근대 중국에서 '郷土' 개념의 전개」, 110쪽.



초적 개념으로 한 세기를 지속하여 문학작품으로 재탄생되는 특이한 현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동아시아 3국에서 20세기 초 향토 개념이 각기 달리 기능한 사실을 정리한 뒤, 중국의 향토 개념과 작가들의 향토 의식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애국의 출발: 일본의 ‘향토’

근대 독일에서 일어난 향토 개념의 전환은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던 일본에 바로 수용되었다.<sup>10)</sup>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민족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국민에게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토애를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향토의 발견이란 “균일하고 동질적인 기억을 창출함으로써 국민(민족)을 만들어내려는 근대국가의 전략으로서 기억의 정치였던 셈이다.”<sup>11)</sup>

일본에서 향토의 근대적 개념은 일본 민속학의 창시자였던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南)가 민속학을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정착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독일 유학을 경험한 농학자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의 ‘地方學’과 ‘향토보호(Heimatkunst)’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았으며, 1907년 ‘향토연구회’ 결성을 주도하고 1913년 잡지 『郷土研究』를 창간하였다. 1910년대 이후 야나기타 구니오를 중심으로 향토를 학문적 대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제창되었고, 향토에 관련된 담론이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

10) 한지은, 위의 글, 101쪽.

11)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0집, 2006년 3월, 392쪽.

기 시작하였다.<sup>12)</sup> 류큐(琉球)와 홋카이도(北海島) 등지를 방문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겼으며, 각 지역의 민속과 민가, 민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향토'는 일본 민족의 토지로서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향토연구』는 토지를 떠나서는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지역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의 향토로서의 토지를 아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한편으로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촌락의 재건, 즉 국가목표에 부합한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시각으로 지방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촌락 재건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력적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 자력적 에너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국난극복의 국가의식, 즉 조국애가 강조되어야 했고, 이 조국애는 국민 자신이 살고 있는 촌락이 국난극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촌락에 대한 자각과 애정, 즉 향토애의 중요성이 자리하였다.<sup>13)</sup> 지방관들은 이런 논리를 배경으로 각 지역의 지방사지를 편찬하였다. 이들은 근대 이후의 사학연구 성과를 향토사 연구에 도입하여 학문적 실증성을 제고하였으며, 국가 황국사관과 관련있는 향토의 인물이나 사적을 끌어내어 자기 향토의 자랑으로 삼는 향토 연구와 향토의식을 창출해내었다.<sup>14)</sup>

결국 일본의 향토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파시즘의 발흥과 함께 향토에

12) 오테영, 「'향토'의 창안과 조선문학의 탈지방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14호), 2006년 10월, 241쪽.

13) 남상호, 「근대일본에서의 '향토'와 국가」, 한국일본어문학회, 『한국일본학연합회 제5회 학술대회 및 한국일본어문학 제25회 학술대회』, 2007년 7월, 810쪽.

14) 남상호, 위의 글, 812쪽.

대한 활동을 통해 애향심을 애국심과 결합하는 지극히 관념적인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이었다.<sup>15)</sup> 민속학 연구 역시 여기에 이용되었다. 더구나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일본 농촌의 파폐가 심화되면서 처음에는 현실의 향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향토인식운동’에서 시작된 문부성의 향토교육운동도 점차 애향심과 애국심 함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본 정신함양’이라는 극히 관념적인 정신운동으로 변질되었다.<sup>16)</sup> 일본에서의 ‘고향’은 ‘향토’로 일반화되었다가 곧 ‘고국’으로 이어졌으며, 향토의 발견은 균일하고 동질적인 기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의식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 3. 식민 통치의 도구, 식민 조국의 은유: 한국 ‘향토’ 개념의 양가성

20세기 초 한국의 ‘향토’는 일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전 국토가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 놓여있었던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당시 한국에서 전개된 복잡하고 다양한 향토 개념의 모든 층위에 개입되어 있었다. 20세기 초 한국에서 전개된 ‘향토’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파악해볼 수 있다. 이것은 ‘향토’ 개념을 구성해내고 활용한 주체에 따라 갈라져 있으니, 통치자와 피통치자, 일제와 조선의 입장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층위의 ‘향토’ 개념을 구성해낸 것이었다. 이 시기 한국의 ‘향토’ 개념은 식민통

15) 한지은, 「식민지 향토 개념의 중층성」,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34, 2010년 9월, 232쪽.

16) 한지은, 「근대 중국에서 ‘郷土’ 개념의 전개」, 101쪽.

치자가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태평양전쟁에 조선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주도한 통치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전개된 '향토'와, 피지배자였던 조선인의 입장에서 구성하고 상상해냈으며 빼앗긴 조국을 상징하는 메타 포로 표현된 '향토', 크게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어떤 층위에서 구성된 '향토' 개념이든지간에 이는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는 역사적 상황에 직접 제약을 받은 것이었다.

조선 통치 시기 일본은 국가 개념으로서의 조선을 통치민의 의식 속에서 제거하는 대신 일개 지역, 혹은 지방으로서의 조선, 더 나아가서는 내선 일체 논리 따라 한 지방일 뿐인 조선, 대동아공영권에 속한 한 지역으로서의 조선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신문』은 『한양신문』으로, 『황성신문』은 『한성신문』으로, 『대한매일신문』은 아예 국호가 사라지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보』과 똑같은 『매일신문』으로 바뀌었다.<sup>17)</sup> 일본에 의해 조선은 국가의 개념이 완전히 삭제되고 독립된 나라가 아닌 일본의 한 지방에 불과한 지역으로, 그것도 고유한 지방색인 '조선색'을 지닌 지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 조선색은 다른 아닌 조선의 '향토'를 중심으로 재현되어 있는 것이었다. 당시 '향토'에는 일본의 지방으로서의 조선과 조선의 지방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중첩되어 있었다.<sup>18)</sup> 일제가 정책적으로 유포한 조선색과 향토색, 즉 조선과 향토의 표상은 미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표현되었다. 대부분 일본인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조선미전에서 조선색의 표현은 가장 중요한 입상조건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확산되었는데, 다음 설명은 지방색과 조선색, 향토색이 미전을 통해 어떻게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이용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락이다.

17)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392-393쪽.

18) 오태영, 「'향토'의 창안과 조선문학의 탈지방성」,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제7권 제2호, 2006년 10월, 234쪽.

(중략)그런데 일본인들이 요구한 조선색, 혹은 지방색을 조선의 작가들은 예술에 반영되는 그 지방의 기후, 색채, 민속사상, 감정 등을 나타내는 향토색으로 부름으로 향토색은 당시 작가들에게 서구나 일본과 다른 조선민족의 색채를 표현하는 예술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향토색 작품으로 평가된 작품 속의 조선의 표상이 기생, 무녀, 조선의 풍속, 풍경 등 이국취향적 소재에 정체된 원풍경으로서의 조선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향토색은 문명개화와 함께 서양의 동양관을 섭취한 일본이 오리엔탈리즘의 주체가 되어 아시아를 향해 던지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으로 파악되었다.<sup>19)</sup>

이처럼 당시 조선색과 향토색은 주로 무기력하고 후진적이며 열등한 오리엔트의 표상과 중첩되는 이미지를 이르면서 조선 백성들의 열등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선 상상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내선일체된 조선반도에서 조선색과 지방색, 향토라는 표상이 동시에 신성시되었다는 점이다. 향토는 열등하고 무기력하면서도 성스러운 장소로 재구성되었으니, 이 배후에는 마찬가지로 일본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만주사변이나 태평양전쟁 등을 통해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면서, 서구 제국이 표상하는 발달한 물질문명과 도시문화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때 ‘향토’가 도시문명을 대적할 만한 신성한 아시아적 가치로 재발견된 것이었다.

서구가 대변하는 근대도시문명은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을 파괴하며 주변국을 침략하는 공격적 본성을 지니고서 일본이 대표하는 아시아를 침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반하여, 이런 서구(도시문명)와는 대조적인

19) 최유경, 「한국근대미술의 향토론의 유행과 일본의 조선무속연구」,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종교와문화』 제21호, 2011년, 167쪽.

조선의 가치가 응집된 조선색, 즉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 조선의 본래적 특성인 향토는 도시문명의 폐단이 미치지 않은 순결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신성화되었다. 이렇게 조선의 향토는 아시아적 향토로 확대되어 서구근대 문명의 피해자인 일본을 위해서 재현되기에 이른다. 근대문명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시아적 향토 혹은 아시아적 농민이라는 개념이었으며 이것은 곧 대동아공영권의 구상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였다.<sup>20)</sup> 일제는 스스로 아시아 여러 국가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적 면모를 보이면서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이라는 향토와 이를 핍박하는 서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sup>21)</sup> 지역적 향토에서 조선적 향토로, 또 다시 아시아적 향토로 나아가는 향토 개념의 비약적 확장을 통해 서양과 억압받는 동양이라는 세계사적 대결구도가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이 세계사적 전개 속에 제국과 식민지라는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흐릿하게 문질러지는 것이었다.<sup>22)</sup>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이 식민 담론에서 파생한 향토의 문법을 그대로 받아쓴 것만은 아니었다.<sup>23)</sup> 향토 개념은 식민 이데올로기를 통해 재구성되는 한편으로 국가를 상상하는 것이 금지된 조선인들에 의해 대리보충물로서 발견되는 양가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상화의 시「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처럼 점차 향토는 국토의 은유로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향토가 제국 내의 지리적 재배치, 즉 일본의 변방으로서의 후진적 조선 상상에 일조하는 경우는 적극 장려해야 했지만, 이상화의 시

20) 김도경, 「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향토 담론」, 16쪽.

21) 김도경, 위의 글, 18쪽.

22) 김도경, 위의 글, 19쪽.

23) 오태영, 「'향토'의 창안과 조선문학의 탈지방성」, 242쪽.

에서처럼 조국과 동일시되고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경우는 금지시켜야 했다. 그러므로 일본에게 “식민지 향토는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한편, 향토애의 고취는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감정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sup>24)</sup>기에 민감한 사안이었다. 194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진행된 향토교육에서는 향토애가 민족애, 더 나아가서는 독립사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향토의 관찰’ 같은 수업을 ‘환경의 관찰’로 바꾸었다. 이처럼 일본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는 향토, 그리고 민족애를 불러일으키는 향토 개념은 20세기 초 식민지 땅이었던 한국에서 중층적 의미로 복잡하게 얹혀있는 것이었다.

#### 4. 지식계층의 태생적 뿌리: 중국의 ‘향토’

20세기 초 중국의 ‘향토’ 개념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전개 양상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애국의 출발점으로 인식된 일본의 ‘향토’와 식민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이었던 한국의 ‘향토’에서 이 개념을 조합하고 구성해낸 주체가 정치권력이었음과 달리, 중국의 향토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은 이를 생성하고 공유한 주체가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데 있다. 20세기 초 중국의 향토 개념의 이해에서 중요한 핵심은 전통적 개념(고향과 산천을 의미)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향토 개념이 중국 근대의 주요 작가와 사상가들 자신에 의해 전승 또는 산포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에서 향토에 관한 담론을 주도하게 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 시기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전통적 고향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향토 개념과 관념을 내

---

24) 한지은, 「식민지 향토 개념의 중층성」, 241쪽.

재화하였다.<sup>25)</sup> 근대 한국과 일본에서의 '향토' 개념이 정치적 상황과 깊게 관련되어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 측면이 강했다면,<sup>26)</sup> 중국의 향토는 지식계층의 정신적·정서적·문화적 뿌리로서 상상된 측면이 더욱 강했으며,<sup>27)</sup> 대부분 경우 중국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이해되었다.

중국에서 향토라는 개념에 정치적 성격이 주어지는 시점은 毛澤東이 이끄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농민과 농촌이 그 핵심 역량과 혁명이상의 구현지로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향토는 더 이상 '향토'가 아니라 '농민'과 '농촌'이라는 단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농민'과 '농촌'은 이제 향토와 달리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계급이라는 정치적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농촌'과 '농민'일 뿐 '향토'는 아니었다. 중국에서 '향토'는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구현되어 있는 공간이자 지식인들의 정서적 뿌리로서 원초적인 무의식과도 같은 개념으로 상상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당대 중국 지

25) 한지은, 「근대 중국에서 '鄉土' 개념의 전개」, 106쪽.

26) 20세기 초 중국에서 향토를 애국심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淸 조정이 시도한 일련의 근대적 교육개혁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1902년과 1904년 두 차례의 근대적 학제개편에서 淸 조정은 향토교육을 교과 내용에 포함시켰고, 1905년에는 향토교재 제작의 지도방안을 담은 『鄉土誌例目』을 만들어 반포하고 각 성 학무처를 통해 府·州·縣 등 하부 행정단위로 하달하였다(한지은, 「근대 중국에서 '鄉土' 개념의 전개」, 104쪽). 이러한 맥락의 향토교육은 일본 메이지 시기의 학제를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향토 개념을 이해하는 데 관련적인 요인이 아니다. 중국의 향토 개념에서 핵심적 측면은 지식계층이 이를 자신의 정신적·정서적·문화적 뿌리로 여겨 왔다는 데 있다.

27) 물론 한국과 일본 역시 향토가 특정한 개념으로 표상될 때 지식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경우 지식인이 상상하는 향토는 일말 지식인이 주체가 되어 구성한 개념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넓은 맥락에서 일본 당국의 의도가 이끄는 대로였거나, 식민지라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다.



식인들이 한국 지식인들과 달리 자국 문화 연구에서 여전히 ‘鄉土 中國’과 ‘중국 문화’를 연결시키는 근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주지하다시피 ‘鄉土 中國’은 중국의 사회학자 費孝通이 일찍이 1940년대에 제기한 개념이다. 費孝通은 중국 사회가 기층에서부터 ‘향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sup>29)</sup> 그는 중국의 향토 사회는 촌락을 단위로 하는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각 촌락은 다른 촌락으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된 채 오랜 세월을 생활해 오면서 각기 고유한 특징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동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과 공간의 관계에서 말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공간적인 배열 관계에서 말하자면 고립감과 거리감이다. 고립감과 거리감은 개별적인 사람을 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사는 집단을 단위로 하는 것이다.<sup>30)</sup>

향토사회의 생활은 지방 특색이 풍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 특색이란 그들의 활동 범위에 지역적인 제한이 있었음을 이르는 것이다. 지역 간 접촉이 드물었고 생활은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각자는 고립된 사회적 테두리를 유지하였다.<sup>31)</sup>

28) 각주 4의 서적 소개에서 거론했던 『鄉土中國與文化自覺』와 『鄉土中國與文化研究』는 개인의 연구서가 아니라 지식계층의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책들이다. 앞의 책은 2004년 조직된 中國文化論壇(劉小楓, 王曉明, 汪暉, 杜維明, 金耀基, 李澤厚, 王元化 등이 이사와 고문으로 참여하는 포럼)의 연구성과로 출간되었으며, 뒤의 책은 溫鐵軍, 曹錦清 등의 사회학자와 王曉明이 주도하고 소장 학자들이 참여하여 농촌사회와 문화의 위기에 대해 연구한 성과물이다. 이를 통해 당대 중국에서 농촌과 향촌, 향토가 여전히 지식계층의 중요한 논제임을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다.

29) 費孝通, 『鄉土中國, 生育制度』, 北京大學出版社, 1998年版, 6쪽.

30) 費孝通, 위의 책, 8쪽.

31) 費孝通, 위의 책, 9쪽.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고립은 촌락 간 인구의 유동이나 왕래를 제한하고 각자 고립된 사회권역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당대의 중국 학자 趙園 역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중국 향촌의 지형적 고립이 결국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지역 문화의 특성은 늘 지방의 고립성에 기대온 것이었다.<sup>32)</sup>

일반적으로 넓은 국토와 대가족제도를 가진 반면에 교통발달이 미약한 중국에서는 지역 간 언어와 풍속의 차이가 매우 크고 예로부터 군벌과 토비의 위험을 막기 위한 향촌 自衛조직 등이 발전하여 이른바 '지방중심주의'가 상당한 역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전통 시대에도 향토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매우 결정적 요소였다.<sup>33)</sup> 각기 고립된 촌락에서<sup>34)</sup> 고유한 문화와 풍속을 형성하며 아득히 오래 살아온 시간과 역사가 중국인, 특히 지식계층의 관념 속에 '향토'에 대한 뿌리깊은 천착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20세기와 21세기 지식인들은 도시에 정착해 활동했지만(활동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향촌 고향으로부터 떠나온 존재들이었으며, 떠나오기 전까지 자신을 포함해 조상 대대로 격리된 채 몸담았던 고

32) 趙園, 「回歸與漂泊: 關於中國現當代作家的鄉土意識」, 『中國現當代鄉土文學研究·上』, 東方出版中心, 2011년, 153쪽.

33) 한지은, 「근대 중국에서 '鄉土' 개념의 전개」, 102쪽.

34) 費孝通과 趙園이 말하는 지역의 지형적 고립 정도를 몇 편의 중국 영화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李楊이 감독한 영화 『盲山』(2007년)의 배경이 된 (그곳으로부터 탈출이 힘들 정도로) 고립된 산촌 지형이나, 戴思杰 감독의 영화 『巴爾扎克和小裁縫』(2002년) 속의 산촌을 떠올리면 고립되어 폐쇄적인 촌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향의 지역적 특성은 까마득히 오랜 시간을 거치며 핏속을 흐르는 유전인자가 되어 있었다. 趙園은 향토에 대한 이러한 의식, 즉 향토 의식을 지식인의 의식 속 특징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향토 의식은 더욱이 지식인의 의식 속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라면 지식인이 농민보다 더 완전한 ‘전통적인 인격체’이다. (…중략…) ‘향토’라는 상징을 사용하는 것 역시 지식인의 창조물이다.<sup>35)</sup>

20세기 초 중국의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地之子(땅의 아들 또는 흙의 아들)’라 불렀다. 이것은 중국 지식인들이 스스로의 정신과 문화적 핏줄을 지적해낸 것이었다. ‘땅의 아들’이라는 자칭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趙園은 중국 지식인 의식 속 향토 개념이 그들의 문화적 핏줄이자 정신적 전통이며 심리와 의식의 심층이라고 지적하면서, 작가 沈從文, 李光田, 蹇先艾, 師陀, 張煒 등의 소설을 인용하고 있다.<sup>36)</sup> 근대 이후 중국의 향토 개념은 지식인의 문화·정서·의식세계의 뿌리임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분석해낸 趙園의 설명은 다시 작가의 의식 속 향토 개념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현·당대문학에서 향토문학이 차지한 특수한 자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중국 사상이 梁漱溟은 또 다른 시각에서 중국 지식인과 향토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전통 시기 중국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농민이 피압박 계급이었다고 인식한 毛澤東과 달리 중국에는 계급 대립 같은 현상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은 서양처럼 지주와 농노, 자본

35) 趙園, 『回歸與漂泊: 關於中國現當代作家的鄉土意識』, 158쪽.

36) 趙園, 『地之子』,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3년, 6~8쪽.

가와 노동자처럼 두 계급이 대립해온 사회가 아니라, 다만 직업이 나뉘어져 있었을 뿐이라고 규정하였다.<sup>37)</sup> 중국은 '耕讀傳家' 하고<sup>38)</sup> '半耕半農' 하던 사회로, 고대 중국 사회에서 공부하는 행위(즉 '讀')와 밭 가는 행위(즉 '耕'), 그리고 士와 農은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耕과 讀 두 가지 일과 士와 農 두 종류의 사람 사이에는 氣와 脈이 혼연일체되고 상통하여 분리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sup>39)</sup> 金耀基도 士人和 農民은 고대 중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계층으로서 서로 소통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의 해석은 중국의 지식계층이 언제나 향토의 일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sup>40)</sup>는 당대의 중국 학자 禹建湘의 견해가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한 논술인지, 아니면 오늘날 새롭게 재현되고 있는 중화주의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담론의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지식계층과 향토의 뿌리깊은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에릭 R. 올프의 설명을 더불어 참고할 만하다. 그는 중국의 농민들이 다른 세계의 농민들과 상당히 달랐던 점 한 가지로 농민과 향신이 흔히 친족체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sup>41)</sup>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폐쇄되고 고립된 향촌에서 농민과 긴밀히 연관된 삶을 이어온 중국 지식인들은 뿌리 깊은 향토 의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깊은 의식 속에 잠겨 있던 향토는 전통 시기에서 근대로의 변화를 거치며 고

37) 梁漱溟, 『中國文化要義』, 上海: 學林出版社, 1995年板本, 142쪽.

38)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경전을 읽으며 성현의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로 예전에 많은 古宅에서 편액을 장식하는 경구로 활용하여 널리 알려졌다.

39) 梁漱溟, 위의 책, 156쪽.

40) 禹建湘, 「20世紀以來文學中鄉土想像的文化機制」,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4卷 第4期, 2010年 7月, 86쪽.

41) 에릭 R. 올프 저, 곽은수 옮김, 『20세기 농민전쟁』, 형성사, 1984년, 109쪽.

향을 떠나온 중국 지식계층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어, 스스로를 ‘땅의 아들’이라 부르는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중국 지식인들에게 특별한 개념이었던 향토는 자연스레 중국현대문학 작가들과 향토문학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 5. 중국현대작가와 향토문학

의식 속 깊은 곳에 향토라는 문화적 뿌리를 간직한 중국의 작가들이기에 문학텍스트 속에서 향토 의식을 재현하고 새로이 상상하는 것, 즉 향토문학의 창작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전통 시기 문학에서도 향토는 문인들 글쓰기의 주요 소재였으나 아래와 같은 의미에서 근대 이후의 향토문학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전문학 속의 마을은(향토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인용자) 아름답거나 고난에 찬 한 폭의 그림이었을 뿐 이성의 눈빛으로 판단되고 발견되지 못하였다. 글 쓰는 자는 향토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의 눈에 마을은 朝廷과 상대적인 隱士의 거처이자 出仕와 상대적인 隱逸이었다.(중략) 그들이 쓰려 했던 것은 그 자신이었다.<sup>42)</sup>

20세기 이후 근대적 향토문학의 출발점은 작가들이 이러한 향토를 떠남에서 시작되었다. 전통 시기에는 지식계층 본인이 바로 향토이자 향토가 바로 본인이었던 일체의 차원이었으나, 근대 이후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면서 거리를 두고 고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대 이후 향토문학의

42) 韓春燕, 『文字裏的村莊』, 上海人民出版社, 2011年, 1쪽.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고향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향토에 관한 기억은 중국 작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 기억이었다.<sup>43)</sup> 중국 학자 吳福輝는 京派 작가를 연구하며 이들이 작품에서 끊임없이 향토에 천착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京派는 清華大學, 北京大學, 燕京大學 등 北京 주요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전형적인 학원과 문학유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편벽한 시골 마을의 풍토와 인정을 즐겨 썼으며, 평생 스스로를 '시골 사람'이라 부르기가까지 하였다. 吳福輝는 京派 작가들이 몸담았던 北京이라는 도시는 상업 중심 도시였던 上海와는 달리 鄉土 中國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도시로서, 이 작가들로 하여금 떠나온 향토 고향을 늘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다시금 상상하게 했다고 설명하였다.<sup>44)</sup> 李健吾, 凌叔華, 林徽因, 蕭乾 등 京派 작가들이 북경의 면면을 적지 않게 써내기도 했지만, 더욱 많은 京派 작가들은 주로 농촌의 이야기를 소설에 담았다. 沈從文, 廢名, 廬焚, 汪曾旗 등은 본인의 고향을 배경으로 중국현대소설사에서 중요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학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집요하리만치 鄉村의 입장과 하늘의 운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눈빛(농촌을 떠나 도시로 오며 겪은 심리적 충격이기도 한)으로 도시 중국을 바라보았으며, 도시와 향촌의 거대한 격차 가운데서 그들의 특별한 심미안과 느낌으로 20세기 중국의 역사를 응시하였다.<sup>45)</sup> 그 밖에도 30년대 중후반부터 40년대에 걸쳐 蕭紅, 端木蕻良, 路翎 등의 소설은 다만 떠나온 고향으로서의 향토가 아닌 본인과 문화의

43) 孟繁華, 「百年中國的主流文學」, 218쪽.

44) 吳福輝, 「費孝通的社會學與我的文學研究」, 『漢語言文學研究』 2010年 第1卷 第4期, 94쪽.

45) 吳福輝, 「鄉村中國的文學形態—論京派小說」, 『中國現當代鄉土文學研究·上』, 99-100쪽.

정체성의 뿌리로서, 또는 향토를 떠나 도시를 떠돌면서도 떨칠 수 없는 정서의 뿌리로서 상상되었다. 현대 중국의 작가들이 향토를 정체성의 뿌리로서 상상했기 때문에 향토문학은 비로소 ‘백년간 중국의 주류 문학’이 된 것이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근대성과 향토문학, 계몽 담론과 향토문학과 관계이다. 근대적 시각을 획득하고 향토를 돌아다 본 작가들이지만, 중국 현대문학 30년의 향토문학에서 근대적 시각에 입각해 작품에서 봉건 문화 비판의 주제의식을 드러낸 작가는 魯迅이 거의 유일하였다. 그리고 그의 향토문학조차 계몽의 주제의식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또 다른 모티프들을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향을 떠남으로써 향토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떠나온 공간적 거리는 향토를 작품 속에서 새롭게 조망할 심경의 거리를 조성해 주었으나, 이로 인해 탄생된 작가들의 작품은 신문화운동의 계몽의식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의미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었다.

지금껏 작가의 계몽적 입장에서 향토문학을 분석해온 연구자들은 중국 현대문학 30년이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적·사회적 움직임과 동보적 관계였다는 기존 문학사의 시각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촌을 근대적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국 지식계층의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매 세대의 중국 지식인들과 사회의 실천자들은 끊임없이 향토 세계의 근대적인 전환을 고민하고 일궈내고자 해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담론으로 제기하였고 이 담론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논증하였으며,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열매 맺고자 노력하였다”<sup>46)</sup>는 중국 학자 吳海淸의 설명처럼, 한 세기 넘는 시간 동안 향토

46) 吳海淸, 『鄉土世界的現代性想像: 中國現當代文學鄉土敘事思想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11年, 1쪽.

를 근대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은 중국 지식계층이 천착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런 지식계층의 담론과 노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작가들의 상상을 통해 향토문학 속에서 표현되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근대성과 계몽의 관점은 중국 지식계층이 향토 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로 향토문학에서 계몽의 관점을 발견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방구를 중심으로 창작된 농촌소설이나, 50년대 농업합작을 다룬 장편소설들은 지식인에게 계몽당하는 농촌이 아니라 翻身의 주체로 등장한 농민과 농촌이 주제였다. 중국현대작가 가운데 작품 속에서 계몽과 향토를 연결시킨 이는 魯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년대 향토소설 작가와 京派 작가들, 蕭紅, 端木蕻良, 路翎 등의 향토문학 속에서 향토를 계몽의 대상으로 상대화시키기에는 이들의 의식 속 향토의 뿌리가 너무 깊숙히 자라 있었고 향토와 일체되어 살아 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이다. 魯迅이 고향을 응시할 때 확보한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은 어느 작가나 쉽게 다다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魯迅의 텍스트는 다시 한 번 특별하다. 그 밖의 향토문학에서 문화 비판과 같은 거대 담론을 읽어낸 것은, 중국현대문학의 발전이 중국이 근대 민족국가를 건설한 과정에 발맞추었다는 기존 문학사의 시각에 근거했을 뿐, 중국 향토문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 모티프인 지식인 의식 속의 향토, 자기가 몸담은 문화의 뿌리로서의 향토를 간파해낸 것은 아니었다. 중국현대작가들의 의식 속 향토는 다만 문화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본인 정체성이 뿌리내린 흙이었기 때문에, 한 세기를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 텍스트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마무리하며

21세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에서 ‘향토’는 주로 향토음식, 향토특산물 등과 같이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담긴 물질 생산물에 한정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출생지는 농촌이지만 그곳을 떠나온 지 몇 십년이 흐른 지금, 그곳은 대부분의 도시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은 아닌 듯하다. 이제 더 이상 ‘향토’를 본인의 뿌리이자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구현된 공간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점차 세계로 확산되는 K-POP이나 드라마 속에서 한국문화의 고유한 요소를 탐색하는 시도가 더 많이 눈에 띈다. 학술연구 영역과 문단에서도 ‘향토’는 그 개념이 담지한 역사적·문화적 담론의 복잡한 파장에 근거해 자체로 특별한 연구대상이라기보다는, 향토민요와 향토음식, 향토문화축제와 향토산업 등의 연구에서 보이듯 다만 지역의 특색을 의미하는 개념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문단에서 향토와 농촌, 농민의 삶과 문제 등에 천착해 글을 쓰는 작가를 찾아보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지금 한국에서 향토는 이미 오래 전 떠나와 현재의 우리와는 별 관계 없는 박제된 공간이거나 고유한 지역색의 공간일 뿐, 더 이상 사회와 지식인 담론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어쩌면 역사적인 연원을 지닌 현상이기도 할 것이다. 즉 20세기 초 한국에서 향토 개념이 일본에 의해 조선색, 향토색으로 구성되면서 지녔던 무기력하고 후진적이고 열등한 이미지의 잔해와 이것이 식민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던 탓에, 해방 이후 지식인 사회에서 향토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조선 지식계층이 떠나온 자의 근대적 시선으로 향토를 응시하는 기회와, 고유한 문화의 뿌리와 관련지어 탐색

할 자발적 기회를 식민지 시기 동안 박탈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식계층에게 향토가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고 재현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같은 시기 향토가 중국 작가들의 텍스트 속에서 계속 재현되는 현상을 떠올린다면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대조적으로 중국 지식계층은 21세기 초 현재에도 여전히 향토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 양국이 향토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을 20세기 초 동아시아 3국의 역사적 배경으로 추수하여 고찰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하에서 '향토'를 통치 이데올로기의 한 방편으로 이용했던 것과 달리, 중국의 향토 개념은 지식인의 자발적 탐색을 통해 문화의 태생적 뿌리로 상상된 점은, 현재에도 여전히 중국 작가들이 향토의 문제에 천착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결론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현재 중국 지식계층의 향토에 대한 큰 관심이 다시금 부활하는 중화주의에 편승하는 담론으로 작용한다는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향토 개념이 사회와 지식계층의 중심적 논의로 다뤄지지만, 실은 상당히 다양한 층위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자비한 자본의 홍수 속에 설 자리를 잃고 생존을 위협받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전통적이고 중국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향토'를 상상하게 하여 위로의 제스처를 연기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1세기 초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향토' 개념은 또 어떠한 시대적 특수성에 영향받아 새 개념으로 재탄생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參考文獻

- 김도경, 「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향토 담론」,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제50집, 2010.
- 남상호, 「근대일본에서의 ‘향토’와 국가」, 『한국일본어문학회, 『한국일본학연합회 제5회 학술대회 및 한국일본어문학 제25회 학술대회』, 2007년 7월.
- 오태영, 「‘향토’의 창안과 조선문학의 탈지방성」, 『한국근대문학학회, 『한국근대문학 연구』 제7권 제2호, 2006년 10월.
- 이규영, 「향토예술운동과 Timm Kröger의 작품 ‘귀향 Heimkehr’에 나타난 고향」, 『독일어문학』 Vol.27, 2004년.
- 천미수, 「민족주의 독어독문학의 발전—1890년에서 1945년까지 독어독문학의 학문사적 고찰」, 『독일어문학』 Vol.35, 2006.
- 최유경, 「한국근대미술의 향토론의 유행과 일본의 조선무속연구」,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종교와문화』 제21호, 2011년.
-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0집, 2006.
- 한지은, 「근대 중국에서 ‘鄉土’ 개념의 전개」, 『문화역사지리』 제22권 제1호, 2010.
- \_\_\_\_\_, 「식민지 향토 개념의 중층성」,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34, 2010년 9월.
- 에릭 R. 올프 저, 곽은수 옮김, 『20세기 농민전쟁』, 형성사, 1984.
- 陶高清, 「論析二十年代鄉土小說的發展及流變」, 『文教資料』 2008年 05期.
- 孟繁華, 「百年中國的主流文學」, 『中國現當代鄉土文學研究·上』, 東方出版中心, 2011年.
- 吳福輝, 「費孝通的社會學與我的文學研究」, 『漢語言文學研究』 2010年 第1卷 第4期.
- 吳福輝, 「鄉村中國的文學形態—論京派小說」, 『中國現當代鄉土文學研究·上』, 東方出版中心, 2011年.
- 禹建湘, 「20世紀以來文學中鄉土想像的文化機制」,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4卷 第4期, 2010.

費孝通, 『鄉土中國, 生育制度』, 北京大學出版社, 1998年版本.

梁漱溟, 『中國文化要義』, 上海: 學林出版社, 1995年板本.

吳妍妍, 『現代性視野中的陝西當代鄉土文學』, 人民出版社, 2010年.

吳海清, 『鄉土世界的現代性想像: 中國現當代文學鄉土敘事思想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11年.

張麗軍, 『想像農民: 鄉土中國現代化語境下對農民的思想認知與審美顯現(1895-1949)』, 山東人民出版社, 2009年.

丁帆, 『中國鄉土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 2007年.

趙園, 『地之子』,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3年.

趙園, 「回歸與漂泊: 關於中國現當代作家的鄉土意識」, 『中國現當代鄉土文學研究·上』, 東方出版中心, 2011年.

韓春燕, 『文字裏的村莊』, 上海人民出版社, 2011年.